

주목! 이영화 '극락도 살인사건'



그 섬에선 어떤 일이?

1986년을 배경으로 섬에서 전개되는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인심 넘치고 살기 좋아 '극락도'라고 불리는 섬에는 17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하지만 밤새 화투판을 벌이던 이들끼리 시비가 불고 다음날 아침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마을을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섬 주민들이 차례로 살해 당하기 시작한다.

보건소장 제우성, 여선생 장귀남이 앞장 서서 살인 범을 추적하는 사이 학교 소사 춘배는 결정적인 단서로 보이는 한장의 메모를 발견한다. 과연 이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괴물' '살인의 추억'으로 흥행배우의 반열에 오른 박해일이 주연을 맡았으며 박솔미·성지루·최주봉·김인문·안내상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한민 감독의 데뷔작이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해일·김혜수 '모던보이' 주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화제의 영화 두편에 톱스타들이 잇따라 캐스팅됐다.



영화배우 박해일(사진 왼쪽)과 김혜수(오른쪽)는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영화 '모던보이'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박해일과 김혜수는 1930년대의 조선 경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던보이'에서 각각 경성 최고의 모던보이 이해명과 비밀스런 모던걸 조난실 역을 맡게 된다.

5월 말 크랭크 인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라디오 데이즈'의 주인공으로는 배우 류승범이 캐스팅됐다.

류승범은 193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을 소재로 한 영화 '라디오 데이즈'에서 여자 이외에는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한량 라디오 PD 로이드 역을 맡게 된다.

'라디오 데이즈'는 미모 외에는 볼 것 없는 재즈가수 마리, 대본도 못 읽는 아나운서 만철 등이 엉겁결에 모여 방송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룬 코믹 드라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빔 벤더스 특별전

광주극장·독일문화원 공동
13~19일 ... '파리...' 등 10편

외로운 한 남자의 뒷모습과 무표정한듯한 나
스다사 키스키의 얼굴로 기억되는 '파리, 텍사
스'는 영화 전편에 흐르는 쓸쓸한 기타 음악까지
더해져 개봉 당시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주름이 깊은 노년의 쿠비음악가들을 카
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부에나비스타 소설클

럽'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켠이 아릿해진다.

우리나라에도 고정팬을 갖고 있는 '길 위의 음
유 시인' 빔 벤더스 감독의 대표작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독
일문화원과 함께 '빔 벤더스 특별전'을 13~19일
까지 개최한다. 모두 10편의 작품 중 놓쳐서는
안될 대표작을 살펴본다.

'길 위의 음유시인' 만나다

▲파리 텍사스(14일 오후 8시)=텍사스주 황량
한 마을에서 4년만에 기억상실과 실어증에 걸린
채 발견된 한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라도 영화 속에 흐르는 기타 연주는 한번씩 들어
봤을 음악이 극의 분위기를 더한다.

▲베를린 천사의 시(14, 15일 오후 5시40분)=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
으로 흑백과 컬러로 인간과 천사의 시선을 대비시
켰다. 불멸의 생을 살던 천사 달니엘이 어느날 아름
다운 여인 미리온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고 인간
이 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까에 날개를 단 채 우울한 표정으로 고悰빌딩
위에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부에나비스타 소설클럽(15일 오후 3시20분)=
'파리, 텍사스'에서 듣을 맙았던 라이쿠데가
구비의 유명 뮤지션들을 모아 '부에나 비스타 소
설클럽'이라는 앨범을 녹음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
멘터리다. 우리에게 생소했던 쿠바 음악을 알린
작품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할아버지 뮤지
션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공연 실황
등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유일한 생존
멤버이자 여성 멤버인 오마라 포르투운도는 오는
5월 내한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더 블루스-소울 오브 맨(14일 오전 11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쳐서는 안될 작품.
마틴 슬롭세이가 총 지휘한 7편의 다큐멘터리 시
리즈 '더 블루스' 중 첫번째 이야기. 20세기 초 미
국을 풍미했던 전설의 블루스 뮤지션인 스눕 제임
스, 블라인드 위릴 존슨의 카리스마 넘치는 나래
이션으로 구성돼 있다.

▲돈 캠 노킹(16일 오전 11시20분)=작가이자 배
우인 샘 세프드와 '파리 텍사스' 이후 20년만에 다시
만난 제작한 로드 무비. 술, 미약, 여자, 스캔들로 얼룩
진 한물간 중년 스타의 뒤통은 인생찾기를 그린 영화
로 가족과 인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소설 '리플리스 게임'을 영화로 만든 데
니스 호퍼 주연의 스크리너 '미국인 친구', 오스 앤
스토리로 감독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제작한 다큐멘
터리 '도쿄-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혼란
과 고통, 상처의 치유 과정을 담은 로드 무비 '핸드
오브 플랜티' 등이 상영된다.

관람료 1편 6천원, 3편 이상 5천원, 프로그램 시간표
는 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ca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5-88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빔 벤더스 감독



'파리, 텍사스'



'베를린 천사의 시'



'부에나비스타 소설클럽'



'돈 캠 노킹'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천년학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스 제일, 하미
고스트 라이더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스 제일, 하미
극락도 살인사건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스 제일, 하미
우아한 세계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스 제일, 하미
마 2.6 폴 스피드	롯데(첨단) 메가박스 CGV(상무)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 코치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이장과 군수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스 제일, 하미
항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300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미스 제일, 하미, 스티박스, 씨너스 전대, 엔터
넘버 23	무등, CGV(상무·첨단), 하미, 스티박스
블랙북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수	스티박스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계적 권위 인증
품질 보증!

FDA

미국 식약국

FDA

승인

국제

국제</div